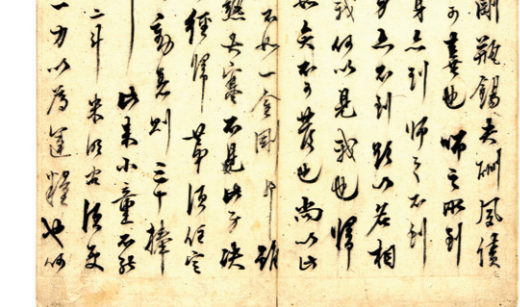




##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초의의 금강산 유람에 도움 준 추사



〈추사문답〉 추사의 친필편지

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선정에 들었다가, 선정 중에 마음이 흔들리다만 삼십 방을 맞을 뿐입니다. 여기에 온 어린 동자는 할 두 말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 사이에 다시 인부를 보내서 식량을 운송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공(空)으로 남은 은덕을 버렸습니까, 이만 줄입니다.

중국의 속언에 “중국인들은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직접 보는 것이 소원이다”고 한 것을 통해 금강산의 명성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회자되었던 경승지였다. 조선시대 금강산 유람기는 정권수(1538~1602)의 《금강록(金剛錄)》과 이경구(1564~1635)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김창협(1651~1708)의 《동유기(東遊記)》가 있다.

특히 조선 후기 경향사족들 사이에서 초의의 금강산 유람은 상징화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의 지금의 경기도 양평과 철원을 지나 강원도의 회양을 거쳐 내금강산으로 들어가, 비로봉과 구룡연, 만폭등을 유람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誌)》에 “서로 만나서도 묘 김강산에게 절하지 않네(相逢不拜妙吉祥)”고 한 것으로 보아 만폭등 계곡의 묘강산을 참배했음이 분명하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승경(勝景)을 벗과 함께하지 못했던 초의, 못나 아쉬워하는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던 추사였기에 “그대가 간곳은 이 몸 또한 간 것이고, 그대 가지 않은 곳은 나도 가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언제나 그대가 있는 곳엔 나도 함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부친을 여린 죄인의 몸이었던 추사였으니 유람 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화살처럼 빠르지만 떠날 수가 없네”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가 행간에 오롯이 나타난다. 더구나 초의의 금강산 유람은 몇 번이나 계획했던 일이었던가. 비로소 실현된 유람이기에 “금강산에 간 그대는 오래된 빛을 통해라 갈라”고 축하한 것이다. 또 추사의 ‘설령 매우 덥거나 춥다하더라도 나를 보지 않고는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고 한 엄포는 살가운 이들의 정화를 드러내기에 족하다.

한편 ‘여기에 온 어린 동자는 할 두 말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 사이에 다시 인부를 보내서 식량을 운송하도록 하세요’라고 한 추사의 의뢰에 응하여, 이는 비로 초의의 금강산 유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인물인 추사였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박종순(동아사이치 문화연구소장)

#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리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받기 협의회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추대 (종사, 대중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시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종단불문, 법남, 속남까지 불문하여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솟음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접수처 :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733-5671

# “문화재 환수 설득 수행과 같아”

## 혜문 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2011년 12월 6일 인천공방에서는 조선 전통상을 그린 사람들이 의전행사를 펼치고 있었다. 결국국지 100년을 맞아 조선왕실의례가 국적으로 돌아온 것. 조선왕실의례 환수는 조선시대 의례 보관을 맡았던 평창 월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불교계와 시민단체, 한·일 국회의원 등 수많은 이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중대한 일이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바로 혜문 스님이 있었다. 2006년 조선왕실의례재현위원회 출범에 산파역할을 하고 이 후 사무처장으로 환수에 큰 역할을 한 혜문 스님. 스님은 도쿄대를 상대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을 찾아오고, 일본 왕궁에 직접 들어가 조선왕실의례를 목격한 뒤 반환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으로 문화재 환수운동과 국내 문화재 오류 바로잡기 운동가로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혜문 스님을 1월 10일 서울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실에서 만났다.

스님을 만난 날은 스님의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리 반환을 위한 미국 출항 전날이었다. 스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고소장을 내밀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기 문화재환을 상대로 보스턴미술관 리마탐청 사리구 관련 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장이었다.

환수를 앞두고 주권부처를 상대로 고소하니 법원이 들어오는 것은 “문화재청이 사리장엄구와 함께 반환한 것은 오류 조건을 달아 사리 반환이 무산될 처지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근제 라마탐청 사리구는 13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돼 양주 회암사와 개성 화장사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일본 도굴꾼이 미국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리구에는 부처 진신사리와 지공·나용 스님의 사리가 함께 모셔져 있다.

스님은 “사리구 전체 반환을 반대하는 보스턴 미술관을 종교 신물임을 들어 사리만 먼저 반환하는 것으로 설득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황후 사리구 반환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분리 반환을 반대해 반환 자체가 무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문화재 환수에 있어 우호적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기에 정부를 대신해 시민·종교단체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냐”며 문화재청의 입장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화재 환수는 구도의 길에 비유된다. 대부분의 국외소재 문화재는 도굴 등으로 인해 반출 된 것. 불법적인 경로가 아닌 이상 환수는 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돌려주려는 마음조차 없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지 않음이 불가능하다.

“이런 저런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환수 일을 벌이기가 쉽지 않겠다”고 말을 건네다 “독립운동도 정부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결국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며 크게 웃었다.

그렇다면 스님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은 ‘할지분처’라고 짧게 답했다.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수행의 과정과도 같기에 수행자로서 문화재 환수 일이 운명처럼 다가왔다는 말이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중생에게 본래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저는 문화재 환수 운동이 불교사상을 사회화하는 과정이며 또 다른 수행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다시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털어냈다. 실권때문에 사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흥선대원군에 관한 졸업논문문을 썼다. 대학원에서는 고전문학을 전공했으며 사범시험 준비를 하다가 1998년 불선사 철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3년간 불선사 조선인 철안 스님을 시봉했다. 대가사신 철안 스님에게서 배운 한문과 불교경전은 문화재 환수운동에 큰 도움이 됐다. 부산 해운정사 선방에서 안거에 드는 등 수행하던 스님을 2003년 은사인 철안 스님이 불렀다.

“2003년 은사 스님인 철안 스님께서 남양주 불선사



보스톤 미술관의 라마탐청 사리구 조사장면

주지로 부임하셨습니까. 은사 스님은 불교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은사 스님께서 불선사 말사 중 27개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 현황 파악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멸실된 문화재 상황이 드러나며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어요.”

먼지가 가득했던 서류를 조사해가며 토지,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스님은 문화재 관리에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과정에서 원동사 3층석탑이 불안되어 있던 사리구가 도난당한 뒤 삼성문화재단에 흘러들어가 사실을 확인했다.

스님은 “현동사 사리구가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자연스럽게 그 유류종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어진 문화재청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제자리 찾기’ 운동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보스턴미술관 리마탐청 사리구 관련 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장이었다.”

스님은 “문화재청이 사리장엄구와 함께 반환한 것은 오류 조건을 달아 사리 반환이 무산될 처지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스님은 국외에서는 문화재 환수, 국내에서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로 활동을 이어갔다.

본격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04년부터다. 스님은

2003년 은사 스님 도우며 문화재 관심 리움 소장 ‘현동사 사리구’ 첫 성과

일본 유학서 우리 문화재 보며 울분 느껴 국민연립 ‘조선왕실의례 환수’ 중심 역할

50년 국내 문화재 오류 바로 잡고 미국, 일본, 중국서 문화재 찾아온 것

혜문 스님은 … 1998년 남양주 불선사에 철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01년 부산 해운정사 금묘선원에서 진제 스님을 모시고 수선안거를 한 이래 불선사에서 정진했다. 2004년 일본 교토 유학 중 ‘조선왕조실록’이 도굴돼 소장돼 있음을 확인한 후 ‘조선왕조실록환수위’를 구성, 반환운동에 앞장섰다. 2006년 9월 ‘조선왕실의례환수위’를 조직해 사내에 걸친 운동을 전개, 일본 정부로부터 1205점의 문화재를 반환 받게 했다. 그 외에도 6·25 전쟁 당시 미군 병사가 약탈했던 ‘표범카펫’의 행방에 문제를 제기, 60년 동안 박물관 관수장고에 있던 것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혜문 스님에게 향후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스님은 “50가지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10가지밖에 못했다”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스님은 특히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중 도쿄국립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승의 갑옷과 무구 반환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스님은 “조선시대 대대로 내려오던 임금의 투구가 일본에 있다는 것은 나라의 군대가 싸울 때 적에게 깃발을 빼앗긴 것과 같다. 나라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도 고승의 갑옷과 무구는 꼭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국내의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의 서동이 일본식으로 돼 있는 것을 바로잡고 광화문에 있는 이충신 장군 동상이 중국 갑옷과 일본 도를 차고 있는 문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 왕실의례도 원소장처인 오대산 제자리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외 환수는 앞서 말한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 투구와 갑옷, 보스턴미술관의 라마탐청

# 조선왕조조도서 환 1주년 기념행사

◆ 일시 : 불기 2556(2012)년 11월 17  
◆ 주최 : 문화재제자리찾기, 서울  
◆ 후원 :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국외

◆ 장소 : 조계사, 조계사 100주년 기념  
◆ 주관 : 조선왕실의례환수위원회  
◆ 후원 : 조계사 안골극점부 hgn.com

조선왕실의례환수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의의를 밝히는 혜문 스님



## 전법일기

### 불심이 불러온 변화

2012년 12월 31일 저녁, 부석사 해넘이해맞이 텀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담(休談)자리에 함께 했다. 첫맛이 시기를 기다리면서 참가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및 참가동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던 우리 절 신도부부 차례였다. 부인이 먼저 간단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첫마디가 상당히 놀랄만큼 충격적인 말이었다.

“저는 부석사에 다니면서 개과천선했어요.” 순간 참석자들이 당황스러워하며 약간의 동요가 있었다. ‘개과천선(改過遷善)’ 단순하게 보면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 착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을 쓸 때는 그 지난 잘못의 정도가 매우 심할 경우에 사용되고 보통의 경우 참회나 반성 정도의 말과 많이 달라졌다. 정도로 표현하곤 한다.

“하하, 표현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니예요. 개과천선 맞아요.” 곁에 있던 남편도 그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를 했다.

사연을 물어보니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결혼의 시작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지내며, 그로 인해 스스로와 가족들 모두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며 바깥으로 다니며 자정에 사랑과 믿음을 주지 못했다. 남편과 딸들에게 착한 어머니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오죽하겠으면 남편이 교회라도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 “절에 다니면서 개과천선했어요”



그림·백구원

“저는 부석사에 다니면서 개과천선했어요.” 순간 참석자들이 당황스러워하며 약간의 동요가 있었다. ‘개과천선(改過遷善)’ 단순하게 보면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 착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을 쓸 때는 그 지난 잘못의 정도가 매우 심할 경우에 사용되고 보통의 경우 참회나 반성 정도의 말과 많이 달라졌다. 정도로 표현하곤 한다.

“하하, 표현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니예요. 개과천선 맞아요.” 곁에 있던 남편도 그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를 했다.

사연을 물어보니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결혼의 시작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지내며, 그로 인해 스스로와 가족들 모두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며 바깥으로 다니며 자정에 사랑과 믿음을 주지 못했다. 남편과 딸들에게 착한 어머니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오죽하겠으면 남편이 교회라도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하하, 표현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니예요. 개과천선 맞아요.” 곁에 있던 남편도 그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를 했다.

사연을 물어보니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결혼의 시작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지내며, 그로 인해 스스로와 가족들 모두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며 바깥으로 다니며 자정에 사랑과 믿음을 주지 못했다. 남편과 딸들에게 착한 어머니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오죽하겠으면 남편이 교회라도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하하, 표현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니예요. 개과천선 맞아요.” 곁에 있던 남편도 그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를 했다.

사연을 물어보니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결혼의 시작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지내며, 그로 인해 스스로와 가족들 모두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며 바깥으로 다니며 자정에 사랑과 믿음을 주지 못했다. 남편과 딸들에게 착한 어머니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오죽하겠으면 남편이 교회라도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하하, 표현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니예요. 개과천선 맞아요.” 곁에 있던 남편도 그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를 했다.

사연을 물어보니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결혼의 시작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지내며, 그로 인해 스스로와 가족들 모두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며 바깥으로 다니며 자정에 사랑과 믿음을 주지 못했다. 남편과 딸들에게 착한 어머니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오죽하겠으면 남편이 교회라도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하하, 표현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니예요. 개과천선 맞아요.” 곁에 있던 남편도 그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를 했다.

사연을 물어보니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결혼의 시작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지내며, 그로 인해 스스로와 가족들 모두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며 바깥으로 다니며 자정에 사랑과 믿음을 주지 못했다. 남편과 딸들에게 착한 어머니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오죽하겠으면 남편이 교회라도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하하, 표현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니예요. 개과천선 맞아요.” 곁에 있던 남편도 그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를 했다.

사연을 물어보니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결혼의 시작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지내며, 그로 인해 스스로와 가족들 모두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며 바깥으로 다니며 자정에 사랑과 믿음을 주지 못했다. 남편과 딸들에게 착한 어머니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오죽하겠으면 남편이 교회라도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하하, 표현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니예요. 개과천선 맞아요.” 곁에 있던 남편도 그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를 했다.

사연을 물어보니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결혼의 시작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지내며, 그로 인해 스스로와 가족들 모두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며 바깥으로 다니며 자정에 사랑과 믿음을 주지 못했다. 남편과 딸들에게 착한 어머니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오죽하겠으면 남편이 교회라도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하하, 표현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니예요. 개과천선 맞아요.” 곁에 있던 남편도 그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를 했다.

사연을 물어보니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결혼의 시작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지내며, 그로 인해 스스로와 가족들 모두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며 바깥으로 다니며 자정에 사랑과 믿음을 주지 못했다. 남편과 딸들에게 착한 어머니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오죽하겠으면 남편이 교회라도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하하, 표현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니예요. 개과천선 맞아요.” 곁에 있던 남편도 그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를 했다.

사연을 물어보니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결혼의 시작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지내며, 그로 인해 스스로와 가족들 모두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며 바깥으로 다니며 자정에 사랑과 믿음을 주지 못했다. 남편과 딸들에게 착한 어머니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오죽하겠으면 남편이 교회라도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산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http://www.shcandle.com)

# 자유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시지발약육양초**

- 약초초 90cm×90cm
- 약초초 연방 한/통 7.0f×34cm
- 약초초 단타레 5.6f×27cm
- 약초초 밀대 4.7f×25cm
- 약초초 1호 5.9f×18cm
- 약초초 2호 5.9f×14cm
- 약초초 3호 4.7f×13cm
- 약초초 4호 4.7f×10cm
- 약초초 4호 반야심경 4.7f×10cm
- 약초초 3호 반야심경 4.7f×13cm
- 약초초 2호 반야심경 5.9f×14cm
- 약초초 1호 반야심경 5.9f×18cm
- 약초초 밀대 천사재(반야심경,연화,효왕이,용)
- 약초초 연방 한/통 천사재(반야심경,연화,효왕이,용)

**한흥일남양초**

- 남양초 90cm×90cm
- 남양초 연방 한/통 7.0f×34cm
- 남양초 단타레 5.6f×27cm
- 남양초 밀대 4.7f×25cm
- 남양초 1호 5.9f×18cm
- 남양초 2호 5.9f×14cm
- 남양초 3호 4.7f×13cm
- 남양초 4호 4.7f×10cm
- 남양초 4호 반야심경 4.7f×10cm
- 남양초 3호 반야심경 4.7f×13cm
- 남양초 2호 반야심경 5.9f×14cm
- 남양초 1호 반야심경 5.9f×18cm
- 남양초 밀대 천사재(반야심경,연화,효왕이,용)
- 남양초 연방 한/통 천사재(반야심경,연화,효왕이,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평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치부리전화 080-0766-8888